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A SLANTING OF THE SUN

가제 : 기울어진 태양

저자 : Donal Ryan

출판사: Doubleday Ireland

발행일: 2015년 9월 10일

분량 : 224

장르 : 소설



#### **아일랜드 출신 주목 받는 신예 작가의 고독과 절망, 희망에 관한 스무 편의 단편**

2015년 런던 도서전에서 EU 문학상을 수상하며 가장 주목 받는 유럽 신예 작가로 인정 받은 도널 가이언이 단편집을 완성했다. 외로움과 고립감, 삶의 터전을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일이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하는지에 보여주는 스무 편의 이야기들은 때로는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때로는 가슴 아픈 선택이 눈 앞에 놓인 중차대한 순간 속에서 펼쳐진다. 곁에 드러나지 않은 인간성을 포착하기엔 썩 날카롭지 못한 관찰자들이 각 이야기에 등장해 다양한 사람들이 지닌 열정과 욕망을 전한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과정을 관찰하고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 찾을 것만 같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끝까지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스무 편의 이야기마다 각양각색 인물들이 벌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서로간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가 형성된다. <기울어진 태양>에서는 복면 강도와 맞닥뜨린 노인이 어쩌다 강도의 눈과 마주쳐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순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감정의 교류가 일어난다. 60대 초반인 동생 마이클과 단둘이 지내는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노인은 쓸쓸한 노년 생활에 활력을 채우고 싶어 신문에 여자친구를 구하는 광고를 내기로 결심한 마이클을 도와 짤막한 광고 문구를 열심히 만들었다. 잠자리에 든 후 느닷없이 들이닥친 강도들. 옷차림으로 짐작할 때 아주 어려 보이는 두 명의 강도 중 하나가 마이클을 부엌으로 끌고가 의자에 앉히고 밧줄로 묶고 돈이 어디 있냐며 무참히 폭행하기 시작했다. 2층에서 잠들었던 노인은 아래층에서 동생이 맞고 울며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며, 계단 맨 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다 계단을 반쯤 오르던 다른 강도와 눈이 딱 마주친 것이다.

## 평범한 일상, 뜻하지 않은 순간 마주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교류와 미묘하게 형성되는 관계들

<수난>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한 여자아이의 목숨을 잃게 만든 남자가 그 아이의 엄마와 만난다. 사고 책임을 지고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는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죽은 아이의 엄마를 만났고, 그녀가 운전하는 차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아이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본다. 그는 비 오던 날 순식간에 일어난 그 사고에 대해서,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히 남아 있는 여자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아이의 엄마에게 담담히 이야기한다.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던 중년의 가게 주인과 가게 종업원, 어느 강간범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몽친 한 무리의 친구들, 아침 조깅을 하면서 영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남자 등 각각의 단편은 이렇듯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마주친 인연, 혹은 따분할 정도로 변화가 없던 삶에 찾아온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또 전쟁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시리아로 건너간 아일랜드인 목사, 아일랜드로 건너온 아프리카 피난민 등 각기 다른 이유와 상황으로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서 사라지는 관계와 새로이 형성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작가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 인간이 겪어야 하는 절망과 함께 희망을, 그리고 고요한 승리를 이야기한다.

### <저자 소개>

도널 라이언(Donal Ryan)은 2015년 런던 도서전에서 EU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로, 데뷔소설 《The Spinning Heart》은 2012년 ‘아일랜드 도서상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2013년에는 ‘Guardian First Book Award’를 수상했다. 《The Thing About December》는 ‘케리 그룹 아일랜드 올해의 소설(Kerry Group Irish Novel of the Year)’ 최종후보에 올랐다.

제목 : TWAIN'S END  
가제 : 마크 트웨인의 결말  
저자 : Lynn Cullen  
출판사: Gallery Books  
발행일: 2015년 10월 1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 마크 트웨인과 그의 비서, 딸, 헬렌 켈러, 설리반 선생님 등 실존 인물들의 상상 속 연애사

미국을 상징하는 작가로 꼽히는 마크 트웨인, 그와 주변 인물들이 남긴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그의 복잡하게 얽힌 사생활을 상상 속에 그려낸 소설이 탄생했다. 베스트셀러 《Mrs. Poe》의 작가 린 켈렌은 마크 트웨인과 그의 딸, 마크 트웨인과 친분 관계가 두터웠다고 알려진 헬렌 켈러, 그리고 헬렌의 선생님 설리반 부부 등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이들 사이에서 형성된 복잡한 관계와 사건을 소설로 엮어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가명으로 집필 활동을 했던 샘 클레먼스는 코네티컷에 새로 마련한 자신의 이탈리아 식 빌라로 헬렌 켈러와 설리반 부부를 초대한다. 그가 오랫동안 머물던 뉴욕을 떠난 일은 <뉴욕타임스>에 실릴 정도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도시에 살면 겨울 내내 여기저기서 파티가 열리게 마련이고,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 초대 받을 일도 많고, 그러다 건강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충고를 받아 들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사한 지 보름도 안 된 어느 날, 마크 트웨인에 관한 기사가 또 다시 <뉴욕타임스>에 실린다. 이번에는 새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뉴스였다. 그의 개인 비서인 이사벨이 실수로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었다.

강도 사건이 벌어지고 몇 달이 지난 1909년 1월의 어느 날, 그의 빌라에 세 명의 손님이 도착해 이사벨과 인사를 나눈다. 사실 이사벨은 비서이자 샘의 은밀한 연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둘의 관계가 드러날까 늘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괴로워하며 당당히 사랑을 인정 받고 싶었다. 하지만 강도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확 달라졌다. 비난이라도 하듯 샘의 태도는 차가워졌고, 이사벨은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용 없었다. 오랜 친구인 헬렌 켈러가 찾아온 그 날도, 샘은 이사벨을 철저히 비서처럼, 때로는 종 부리듯 부려먹기만 했다. 이사벨은 빈 방에 들어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지나온 세월을 통탄한다.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셔츠 단추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를 대신해 온갖 일을 다 처리하고 두 아이들도 지극 정성으로 돌본 그 희생과 시간들이 떠오르니 화도 치솟았다. 한편 헬렌과 설리반 부부가 찾아온 그 날, 늘 말썽을 일으키기로 소문난 샘의 딸 클라라 클레먼스도 빌라에 머물렀다. 유명 인물의 딸답게 클라라의 사생활도 가끔 대중들에게 알려지곤 했는데, 최근에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에 휘말린 상태였다.

**일기, 글, 편지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상상 속에 그려낸 복잡한 관계, 사랑**

저녁 식사가 있던 날로부터 다시 두 달의 시간이 흐르고, 이사벨은 샘의 사업 관리자인 랄프 애쉬크로프트와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뒤 샘은 이사벨과 랄프를 한꺼번에 해고한다. 업무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린 것이다. 게다가 샘은 두 사람에게 대한 불 같은 분노를 429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글로 정리하는데, 여기서 이사벨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 위선자, 술고래, 협잡꾼, 배반자, 남자를 유혹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천박한 여자’라며 맹비난한다. 딸 클라라까지 나서서 신문에 이사벨을 비방하는 글이 실리도록 한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엄마처럼 클라라, 요양원에 가야만 했던 샘의 또 다른 아이 진을 모두 돌보며 가족에게 헌신한 이사벨은 어쩌다 두 부녀가 걱정하고 파괴시키는 표적이 되었을까? 헬렌 켈러가 찾아온 그 날 저녁,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저자는 마크 트웨인과 이사벨, 애쉬크로프트의 뒤엉킨 관계와 그의 빌라에 찾아온 날 무심코 드러난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설리반 남편의 또 다른 복잡한 관계, 그리고 이루지 못한 자신의 불행할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은 클라라가 이들 앞에 폭로하는 위선과 비밀을 흥미진진한 시선으로 펼쳐 보인다.

**<저자 소개>**

린 컬렌(Lynn Cullen)은 애틀란타에 살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Mrs. Poe》는 미국 전역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며 ‘Target Book Club Pick’에 선정되고 2013년 ‘NPR Great Read’로도 선정되었다.

제목 : TOXIC

가제 :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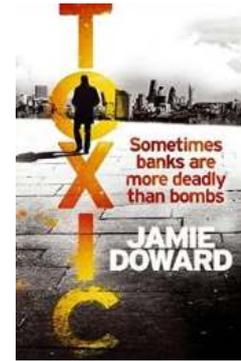
저자 : Jamie Doward

출판사: Constable

발행일: 2015년 3월 1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 작은 해변에 떠내려온 훼손된 시체 한 구, 그의 죽음을 둘러싼 무서운 음모와 수상한 조직

영국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켄트.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원자력 발전소가 바닥에 주저앉은 듯 널찍이 자리한 어느 해변에 부풀어오른 말랑한 바다 생물체 같은 물체가 떠내려 온다. 놀랍게도 그 물체는 사람의 몸이었다. 머리로, 양 손도 다 잘린 그 시신은 '헉스'라는 수상한 미국 투자은행의 직원으로 밝혀졌다. 테러리스트의 자금 흐름을 몰래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CIA가 만든 은행으로, 영국 정부는 그 실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제아무리 뛰어난 안보 전문가도 쉽게 캐낼 수 없다는 대규모 금융 거래, 무기나 플루토늄 밀거래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정하게 획득한 돈의 물밑 움직임은 훨씬 더 추적하기 힘들다.

영국 정보부 소속 재정 조사관인 케이트 펜드래곤은 헉스 은행 직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고 켄트를 찾아와 지역 경찰과 함께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체에 자살로도 해석될 수 있게 교묘히 꾸며진 흔적이 있지만 민물에서 먼저 익사한 후 바다에 버려졌다는 결론을 얻고, 더 큰 음모가 숨겨진 살인이라는 확신으로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다.

사건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배경과 배후 세력을 찾기 위해 죽은 이의 직장인 은행을 찾아 그가 남긴 자료들을 파헤치며 숫자로 백백이 채워진 문서와 서신들을 철저히 연구하던 케이트는, 마침내 이 한 사람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하며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만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뿌리째 흔들고 유럽과 미국 전체에 테러를 일으켜 경제적으로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속속들이 알게 된 것이다. CIA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헉스 은행은 조만간 무너질 것이 분명했고, 핵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중심으로 모여든 한 무리의 정보국 요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계 금융 시장을 쥐고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CIA 요원들 중에는 헉스 은행을 살리기 위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방관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케이트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 영국과 미국의 정보부가 이들의 교활한 음모에 농락당해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간파한다. 서둘러 막아야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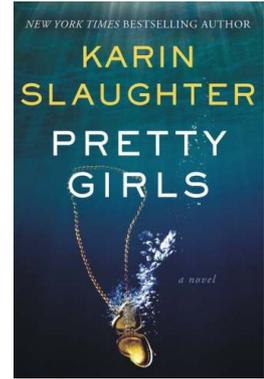
###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을 한꺼번에 속이고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려는 테러리스트의 실체

어둠의 돈을 찾기 위한 위장 기관으로 CIA가 게임이라도 하듯 영국에 설립한 은행과 세계 경제 시장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무리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핵무기로 세계를 파괴하려는 테러리스트, 그리고 끔찍한 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무도 믿어 주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이 거대한 무리의 움직임을 막으려고 나선 비상한 두뇌의 여성 조사관, 이들이 벌이는 팽팽한 대결이 차갑고 낮은 우울한 켄트 해변을 배경으로 박진감 넘치게 펼쳐진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그리고 어느 나라든 국가 정보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추적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런 확신 하나만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진실을 밝히고 대형 사태를 막으려는 케이트, 비상한 두뇌와 용기를 지닌 그녀의 고투는 과연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자는 현재 ‘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의 속편을 집필 중이다.

#### <저자 소개>

제이미 도워드(Jamie Doward)는 <옵저버>지에서 16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다. 경제, 종교, 사회 관련 뉴스를 주로 취재하며 선임 기자로 활동 중이다. 위 소설은 그의 데뷔작이다.

제목 : PRETTY GIRLS  
가제 : 어여쁜 소녀들  
저자 : Karin Slaughter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5년 9월 29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 사라진 소녀, 남남이 되어버린 자매들과 또 한 명의 처참한 죽음, 두 사건의 기묘한 연관성

열아홉 살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바에 들렀던 줄리아는 술을 늘 마시던 양 정도만 마시고, 몸이 좀 좋지 않다며 먼저 집에 간다고 바를 나섰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후 누구도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고, 작은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 납치해서 처참히 짓밟은 후 아무렇게나 버린 건 아닐까,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들도 조심스레 그런 가설을 내놓았다. 하지만 줄리아는 늘 고집불통에 좋아하는 일은 열정적으로 뛰어들던 자유로운 소녀였기에 가족들은 그냥 어딘가로 훌쩍 돌아났을지도 모른다고, 어느 날 문득 잘못했다며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뉘든지 했다. 병원, 경찰서, 노숙자 쉼터까지 빠짐없이 찾아가고, 전화를 하거나 전단 광고를 만들어 온 동네에 뿌리고,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줄리아의 친구들을 만나고, 버려져 방치된 건물과 화재로 불타고 남은 집들까지 모조리 뒤졌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모아둔 재산의 절반을 날리고 점성술사를 만나 나머지 절반도 다 날렸다. 언론 매체의 힘도 빌려보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자 다들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다. 꼬박 몇 년 동안 허위 제보는 계속 이어져 가족들의 마음을 짓무르게 했다. 그리고 엄마는 마침내, 남은 가족들을 위해, 줄리아를 그만 찾기로 마음 먹고 그저 언젠가 아이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만 가슴 깊이 남겨두었다.

줄리아가 사라지고 2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인지, 줄리아의 나머지 자매들, 클레어와 리디아는 서로 한 마디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서른여덟이 된 클레어는 애틀란타에서 백만장자인 건축가 폴과 18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부지만, 너무나 자신을 아끼고 지켜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걸 클레어는 잘 알고 있다.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가 나던 날, 두 사람은 시내 어느 바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TV에서 열여섯 살 소녀의 실종 뉴스가 흘러나와 클레어의 마음을 잠시 휘저어놓았지만, 폴은 더없이 달콤한 말로 사랑을 고백하며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 위험한 비밀, 냉혹한 복수, 예기치 못한 용서에 관한 정교한 심리 스릴러

집에 돌아가려고 바를 나서던 클레어와 폴. 그런데 건물 복도에서 잠시 키스를 나누던 두 사람 앞에 시커먼 후드 티셔츠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폴과 클레어는 지갑이며 시계, 보석, 휴대전화까지 전부 다 내놓았지만 그는 갈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노린 건 클레어였다. 결국 있는 힘껏 반항하는 그녀를 질질 끌고 주차장까지 데려간 남자와 뒤쫓아온 폴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폴은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렇게 클레어만 남겨둔 채, 폴은 세상을 떠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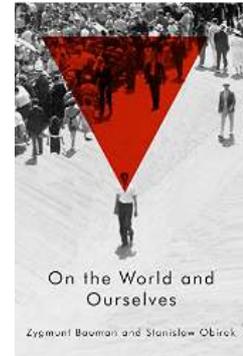
줄리아의 또 다른 자매 리디아는 클레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전과자와 전혀 득 될 것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클레어의 남편이 순식간에 살해된 후, 두 사람은 20년 만에 처음 얼굴을 마주한다. 그 오랜 세월 서로 연락은 커녕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지만 줄리아가 남긴 상처를 둘 다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찾으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그 길만이 가족 전체를 망가뜨린 원인을 찾아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레어와 리디아 앞에 점점 가까워지는 사건의 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어쩌면 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얻을지도 모른다.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두 여성과 가족들을 통해 비밀과 복수, 상처, 용서를 이야기하는 심리 스릴러다.

#### <저자 소개>

카린 슬라우터(Karin Slaughter)가 발표한 열 편이 넘는 소설과 단편집은 다수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Grant County》, 《Will Trent》 시리즈, 《Cop Town》 등 그녀의 소설은 32개 언어로 번역되어 3,00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며 영국, 아일랜드, 호주, 네덜란드, 독일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다.

## NON-FICTION

제목 : ON THE WORLD AND OURSELVES  
가제 : 세상 속에 서 있는 인류  
저자 : Zygmunt Bauman, Stanislaw Obirek  
출판사: Polity Press  
발행일: 2015년 7월 1일  
분량 : 180 페이지  
장르 : 인문



### **선과 악의 선택,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픈 인류가 선택한 다양한 대안과 세계관**

악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아담은 그 답을 얻기 위해 선과 악의 지식이 담겨 있다는 열매를 맛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그 이후에도 이 질문은 인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인류 역사에서 선과 악은 항상 선택과 결부되어 있었고, 자유로운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한 인간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선택을 책임지는 일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이기에,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혹은 인간의 행동은 모두 유전자 탓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내가 한 행동의 도덕적인 책임을 덜 수 있는 천국을 찾는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 책은 이처럼 사람들이 믿는 생각들과 세계관의 역학을 살펴보고, 살면서 찾아오는 어떤 생각과 지식, 정보와의 우연한 만남이나 접촉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여준다. 또 한 번 시작된 그 변화는 중도에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리스인들은 무언가에 놀라고 감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철학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근원이라고 여겼다. 그리스인들의 지혜는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지만, 지나온 역사적 경험을 통틀어 생각하면 그 지혜 속에도 수정할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언가에 놀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 현재의 결과를 바꾸고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칠지도 찾아야 하고 알아내야 한다. 20세기 유럽이 바로 그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한 발 늦게 형성된, 유럽 바깥 세계의 문명 사회를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살펴본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문명의 한계를 깨달았고, 수정을 단행했다. 마찬가지로 종교,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달성한 성과를 보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지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번민이 자리한 마음을 과연 종교가 달래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며 세계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가는 과정**

어떤 문제에 봉착해 마음을 달아버리면 불안감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고통

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위안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불안감을 서로 나누려던 마음은 곧 타인을 억압하고 경시하고 싶은 욕구를 촉발시키고, 이것이 악의적인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 이런 흑색선전이나 조작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나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뿐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한다. 문제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어딘가에 이미 만들어진 답이나 지혜, 완성된 무언가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답이 필요한 사람이 노력을 통해 직접 그 답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설명하려는 요지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안이 생겨나는 것이다. '원가 다른 것'에 대한 요구, 이것은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며 문화적인 혁명이다.

지그문트 바우만과 스타니슬라프 오비렉 두 저자의 대담 형태로 구성된 책으로, '소비자'로 구성된 분열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인류가 맞닥뜨리는 삶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러한 사회에서 인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성 즉 선과 악의 선택에 대한 책임, 자아 형성, 자기 권리의 형성, 인정 받고 싶은 욕구, 공감에 대한 요구, 상호 존중, 인간의 존엄성과 관용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 <저자 소개>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리즈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그의 저서는 30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스타니슬라프 오비렉(Stanislaw Obirek)은 과거 예수회 신도이자 목사를 지내고 현재 폴란드 로지대학교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PRESENTATION THINKING AND DESIGN

가제 : 프레젠테이션, 생각과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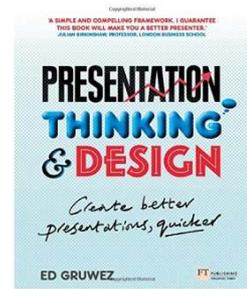
저자 : Ed Gruwez

출판사: FT Publishing International

발행일: 2014년 9월 18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회사 사람들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프레젠테이션, 제대로 준비하고 설계하는 법

어느 회사나 업무 시간 중에 회의실에 모여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발표자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보통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소비자, 동료 등 그리 많지 않다. 발표 주제나 목적은 영업, 확신, 경고,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 전략 설명, 사업 개시, 교육 등 아주 다양하다. 수없이 많은 책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발표 잘 하는’ 요령을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체로 수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에 두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발표를 할 일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일상적인 업무 상황에서 수시로 하게 되는 소규모 프레젠테이션에 중점을 두고, 발표를 잘 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발표 이전 단계, 즉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저자는 성공적인 발표가 전적으로 이 준비 단계에 좌우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심하게 다듬어 잘 설계된 프레젠테이션은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며 충분히 준비하면 발표자가 무언가 ‘새로운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던지고 편안하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청중에 온전히 집중하여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며,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열두 가지 단계가 하나씩 소개된다. 제 1부에서는 그 모든 단계를 소개하기 앞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와 ‘프레젠테이션의 역설’ 등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이어 발표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제시하고, 우리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준다. 이 과학적인 정보는 보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설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설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생각하기-논리 전개-이야기 만들기-전달 매체’까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다시 세 가지 하위단계로 이루어진다. 저자는 유익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실용적인 팁을 제시한다. 더불어 여러 회사에서 발생하고 목격된 다양한 실례가 함께 제시된다.

발표의 기술이나 화려한 기교보다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효과를 높이는 12가지 유용한 팁  
풍부한 근거 자료와 조사 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동시에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균형 있게 고찰한다. 발표 내용에 그릇된 논리가 포함되거나 논리가 바르더라도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제아무리 감동적인 표현과 정서에 호소하는 말들을 집어 넣더라도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없다. 저자는 바로 이 점을 포착하고, 논리와 감정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발표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파워포인트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열고 전달해야 할 내용을 마구 끼워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도 없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없다. 저자는 발표 준비를 하면서 한 번에 수 백 가지를 생각하고 반영해야 하는 고충을 고려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발표 준비에 소요되는 엄청난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도 질적 수준은 훨씬 더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을 짚어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잡혀도 괴로워하기보다 내심 기대하게 되는 수많은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에드 그루베즈(Ed Gruwez)는 'Ogilvy Internal Communications' 과 'To The Point at Work Ltd' 의 소유주이자 CEO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다.

제목 : YOUTHNATION

가제 : 청년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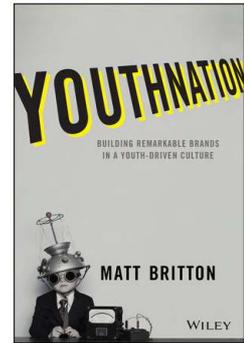
저자 : Matt Britto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5년 4월 2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 한 나라의 문화, 경제, 정치를 좌우하는 청년 세대,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시장에서 생존한다

‘청년 국가’는 미국에서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굳건히 자리했다. 주류 문화에 맹렬히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대로 여겨지던 청년들이, 이제 문화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이들은 분야와 상관 없이 시장 전체와 시장의 동향, 물락을 이끄는 가장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하며 미국 산업의 전체적인 풍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저자는 바로 이 흐름이 새로운 ‘현 상태’가 되었다고 단언하며 청년이 지배한 경제 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과도한 사회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열광하고 셀피에 집착하는 청년들이 상업계 전체와 문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이 젊음의 본질을 중시하고 철저히 조사한 영리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저자는 이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저자가 정의하는 ‘청년’은 1982년부터 1998년 사이에 태어나 미국 전체 인구 중 8,000만 명을 차지하는 인구 집단으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문화, 경제, 정치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세 가지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20억 명을 넘어서면서 의사소통과 상거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둘째,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와 도구, 콘텐츠와 접촉한다. 이로 인해 자연히 데이터나 콘텐츠의 접근 방식,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시장의 개혁 속도는 상업계 전체의 미래 구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있으며, 저자는 브랜드, 제품, 마케팅에 그들이 형성한 문화와 힘을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 책에서 설명한다.

### 급속히 변화하는 청년 문화 속에서 브랜드를 더 확고히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한 기업 지침서

저자가 책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다. 그 첫 번째는 청년 소비자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소비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기업이 하려는 대화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상황에 맞는 각종 의사소통 방식을 동원하여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 기업이 추구하는 것을 얻고 기

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공감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소비자가 기업이 만든 브랜드를 '소유'했다고 느끼게끔 해야 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소비자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닌, 진심으로 그러한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가 강조하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마케팅과 연계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제품의 상호작용,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 주요 고객이나 금융 거래처를 대하는 방법 등 기업과 제품,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전 과정이 마케팅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저자는 청년들이 좌우하는 현대 경제 사회에서 해묵은 마케팅 방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확보하려면 청년 문화에 담긴 핵심을 포용하고 사업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 생각, 전략, 기본이 되는 요소와 조언을 이 책에 담았다. 총 16장의 내용을 통해 21세기 기업의 브랜드 구축과 관련된 핵심 사항을 논하면서 빅데이터와 소비자 단체, 클라우드소싱, 경험 경제, 콘텐츠 마케팅, 동등 계층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비롯하여 각 기업이 표적으로 삼는 시장에서 청년 세대의 성격적 특징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브랜드에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담아 소비자가 알아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나 소비자가 기업과 브랜드를 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여하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충성도 높은 소비층을 확보하는 방법,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 경제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 <저자 소개>

맷 브리튼(Matt Britton)은 세계 유수의 기업과 브랜드에 창의적 기술을 활용하도록 조언하는 마케팅 서비스 업체 'MRV'의 창립자이자 CEO다.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등 다양한 신문, 방송 매체에 청년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전문가로 글을 게재하거나 출연하고 있다.

제목 : AN EYE FOR AN EYE

가제 : 눈에는 눈: 범죄와 처벌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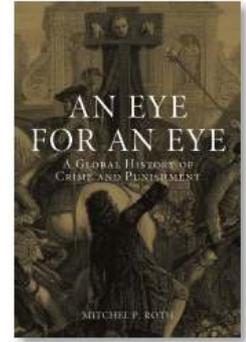
저자 : Mitchel P. Roth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5년 2월 1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사회



### 다양한 사회에서 범죄의 정의와 처벌 방식의 변화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고찰한 조사서

우리는 무엇을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인류가 폭력과 기만을 저지르고 손상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아주 심각한 결과도 충분히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를 통해 무수히 입증됐다. 당연히 범죄와 처벌은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은 벌을 주고 다른 행동은 용인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고 희생자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소한 악행부터 성범죄, 연쇄 살인, 저작권 침해, 조직적인 범죄까지 범죄의 범위도 다양하고 처벌 대상도 광범위하다. 인류 역사에서 교도소를 만들고 감금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것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현대에 들어서면서 가해자의 갱생을 둘러싼 철학적 논의도 점차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각기 다른 문화와 사회에 따라 같은 처벌 방식이라도 야만스럽게 혹은 정당하게 여겼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특히 사형 제도에 있어서는 가해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 방법부터 독살, 총살, 극약 투약으로 처형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전 시대에 걸쳐 극도의 혐오감과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는 지지 여론이 동시에 형성되었다. 그 동안 범죄와 처벌에 관한 논의는 솔하게 이루어졌지만 역사적인 고찰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인류학, 고고학, 민속학, 고전 문학, 구전 등 여러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며 그 틈을 채워 넣었다.

범죄와 처벌이라는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두 주제를 폭넓게 고찰하기 위하여 저자는 서구중심의 사료 조사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자료를 조사하고 총 아홉 개의 장으로 엮었다. 1장에서는 선사 시대부터 고대 사회에 어떤 형법이 마련되고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존재했던 훨씬 엄격한 사회 관습과 극동 지역, 이집트, 인도, 중국 등 다양한 문화권의 형법에 대해 알아본다. 2장은 영향력 있는 다양한 법적 전통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고찰한다. 역사적 자료에서 열 가지가 넘는 법적 전통이 확인되지만 현대에 들어 네 가지만 남게 된 과정과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

**인류학, 고고학, 민속학, 문학을 아우르며 범죄와 처벌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 책**

3장은 사회가 국가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발전하면서 범죄와 처벌 방식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설명하고, 4장은 처벌 형태의 변화와 현대식 교도소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다. 한 국가의 처벌 방식은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알려주고 문명의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어 5장에서는 국제 범죄가 확고히 자리하기 이전 단계에, 보다 조직적인 형태의 범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고찰한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범죄는 국지적인 문제로 정부의 힘이 약해진 곳에서 속속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나타난 기상천외한 범죄 형태를 소개하고, 조직적 범죄가 형성된 배경으로 작용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6장에서는 국제 범죄단을 주제로, 그 뿌리부터 발달 과정을 이야기한다. 7장의 주제는 살인의 역사를 다룬다. 특히 다중 살인과 성 범죄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강도, 강간, 뇌물 등 다른 범죄와 달리 왜 살인이 범죄 전체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지 설명한다. 8장은 식민지 개척 등 한 국가를 설립하는 과정이 전 세계에 형벌 규정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살펴본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형벌 철학의 예, 혹은 중국과 이집트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달한 전혀 다른 범죄의 개념 등을 예로 들어 이야기한다. 마지막 9장에서는 범죄와 처벌에서 나타나는 순환적 특성과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범죄 행동의 놀라운 공통점을 이야기한다. 범죄와 그것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제도적으로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폭넓은 통찰을 얻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미첼 P. 로스(Mitchel P. Roth)는 샘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형법과 범죄학을 가르치고 있다. 《A History of Crime and Punishment》 등 다양한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THE HIDDEN GAME OF BASEBALL

가제 : 야구, 보이지 않는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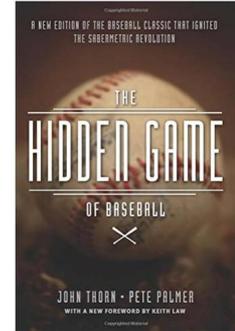
저자 : John Thorn, Pete Palmer

출판사: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발행일: 2015년 3월 20일(제 3판)

분량 : 440 페이지

장르 : 스포츠



### 1984년 처음 발표된 야구 서적의 고전,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경기 통계 분석

경제학자 마이클 루이스는 2003년, 만년 꼴찌에서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의 기적을 일으킨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팀의 성공에 밑거름이 된 과학적인 선수 경영 방식에 관한 저서를 발표하며 큰 관심을 얻었다. 이 책을 토대로 2011년 만들어진 영화 ‘머니볼’도 구단장 빌리 빈의 짜릿한 반전 승부를 그리며 화제를 낳았다. 통계학자인 네이트 실버는 2002년 야구선수 분석과 예측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명성을 얻고, 그 여세를 몰아 <뉴욕타임스>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치 분석결과를 소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2012년 미국 대선 결과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활약을 벌이기 훨씬 전인 1984년에 초판이 나온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이미 통계학으로 야구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야구에서 승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 타점보다 훨씬 더 미묘한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두 사람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야구 통계와 야구라는 게임 자체가 모두 틀렸음을 입증해 보였고, 야구 데이터분석에 혁명을 몰고 왔다. 30년 넘게 야구의 진정한 고전으로 인정 받고 있는 이 책은 새로 정리된 3판에서도 야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만들어낸 두 저자의 깊이 있는 분석을 그대로 담았다.

통계 없이도 야구를 사랑할 수 있지만, 통계를 빼면 야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두 저자는 각기 다른 시대에 활동한 선수들의 능력을 서로 비교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개하는 한편, 1860년대 후반 크리켓 광팬이던 헨리 채드윅이 박스 스코어를 정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저자 두 사람이 개발한 혁신적인 컴퓨터 기반 시스템에 이르는 야구 통계의 역사를 추적하며 상세히 소개한다. 두 저자가 마련한 ‘선형 가중치 시스템(linear weights system)’은 각 구장의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야구 외적인 요소까지 반영하여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예측 결과를 얻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선수들의 능력이 재평가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선수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 야구 분석의 역사부터 스포츠 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장을 연 혁신적인 시스템까지 총 정리한 책

두 저자의 분석을 통해 선수들에 관한 분석뿐만 아니라 희생 번트는 결국 손해라는 점, 투구가 경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44 퍼센트에 불과하며 수비가 6 퍼센

트, 타구가 50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사실 등 야구의 승리를 결정 짓는 폭넓은 데이터가 제시된다. 더불어 우승을 위해 팀 감독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경영 방식이 소개된다.

빅데이터와 훨씬 더 발전된 통계학적 지식이 동원되면서 야구 데이터 분석도 이 책이 처음 나온 30여 년 전보다 더욱 정확한 예측을 내놓고 있지만, 야구에 통계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지, 또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다. 총 15장으로 구성되는 책에 담긴 자료들은 각종 수식과 도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뒷받침되는 값진 정보들로, 야구 팬과 기자, 스카우트 담당자, 야구 경영과 행정 관계자, 야구 선수들까지도 경기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더 나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저자 소개>

존 손(John Thorn)은 스포츠 역사가이자 작가로 2011년부터 메이저리그 공식 야구 역사가로 활동 중이다.

피트 팔머(Pete Palmer)는 통계학자, 야구 분석가로 '스포츠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제목 : A BITE-SIZED HISTORY OF FRANCE

가제 : 한 입 크기로 본 프랑스 역사

저자 : Stephane Henaut, Jeni Mitchell

출판사: The New Press

발행일: 2016년 5월

분량 : -

장르 : 역사



###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는 프랑스의 음식과 역사, 두 가지를 한데 엮은 60편의 이야기들

맛있는 음식과 흥미진진한 역사, 프랑스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 두 주제를 독특한 시선으로 탐구한 책이 완성될 예정이다. 로크포르 치즈를 사랑한 시저 황제의 이야기부터 나폴레옹이 크레페를 만든 이야기, 태양왕 루이 14세가 구축한 혁신적인 부엌, 파리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유쾌한 분위기의 카페들까지,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프랑스의 역사와 미식가들을 사로 잡는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 와인을 접목시킨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치즈 전문가와 유럽 역사가 부부인 두 저자는 60편의 짙막한 글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프랑스에서 음식과 와인을 제대로 구입하고 즐기는 법, 아름다운 경치와 기막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함께 소개한다.

미국인만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프랑스. 일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의 역사와 음식에 관한 책은 무수히 출간되었지만 이 두 가지 주제는 영화나 소셜미디어, '레미제라블'과 같은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두 저자는 방대한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의 테두리 속에서 침샘을 가장 자극하는 음식과 와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황제와 광기 어린 왕의 치즈>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어느 불성실한 양치기 덕분에 탄생한 로크포르 치즈가 시저 왕제와 샤를마뉴 대제에게 큰 사랑을 받고 '광인'으로 알려진 샤를 6세는 왕실 차원에서 이 치즈를 지키기까지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된다. 더불어 로크포르 치즈와 그 본산인 로크포르 마을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준다. <세균과 포도나무>에서는 파스퇴르가 의학계와 미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이름을 알리기 전, 프랑스 쥐라 지역에 살면서 다른 와인들과 확실히 차별화된 이 지역 와인을 접하고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세균 이론의 기반이 되어 나중에 그 유명한 저온살균법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식과 프랑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 그 독특한 역사

<녹색 요정>은 눈길을 확 사로잡는 녹색 빛깔이 인상적인 술, 압생트에 얽힌 역사가 소개된다. 프랑스에서 19세기 중반에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압생트는 향정신성 작용, 어마어마하게 높은 알코올 도수로도 유명한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시골 상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와인보다 압생

트를 더 선호하게 된 이유, '녹색의 저주'로 불리며 압생트 금지 운동까지 벌어지게 된 배경 등을 읽다 보면 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소문을 일으켰는지 놀라게 된다.

그 밖에도 프랑스가 터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다면 크로와상이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중세 유럽의 프랑스 십자군이 채식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한 이야기, 또 20세기 들어 코카콜라를 비롯한 미국의 식품들이 프랑스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영향력 있는 요리사와 음식 개발자로 손꼽히는 인물들도 소개한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가 풍성하게 녹아 있어서 프랑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음식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 좋아할 만한 책이다.

#### <저자 소개>

제니 미첼(Jeni Mitchell)은 뉴욕에서 태어나 워싱턴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다가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전쟁 연구로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프랑스에 살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쟁 역사에 관한 잡지 <Guerres & Histoire>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스테판 히노트(Stephane Henaut)는 제니 미첼의 남편으로 요리사, 식재료 판매 등 음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일을 해 왔다.